

[동양고전산책](#) | [정형외과 질환별 팜플릿 발간](#) | [공지사항](#) | [전문의 시험 논문점수 규정안내](#) | [CiOS](#)
[공지사항](#) | [CiOS 인용상](#) | [국문학회지편집위원회 공지](#) | [관련학회 및 국내학술회 소식](#) | [교실 소식](#) |
[회원 동정](#) | [모집 공고](#) | [CONFERENCE](#) | [고문변호사 칼럼](#) | [출간소식](#)

謹賀新年

A group photo of six men in suits, two seated in the front and four standing behind them, in a traditional Chinese setting. The background features a large display of orange fruits and a model of a traditional Chinese building. The text "謹賀新年" (Happy New Year) is written in a stylized font at the top.

2016 January vol.311

자세는 요고요고!

허리와 골반을 따뜻하고 똑바르게

- 01 요고요고**
바른 자세(골반 평형 + 허리 세움 + 어깨 펴짐)
구들장열로 냉기를 소멸시킴
- 02 발엔뜸 / 집중밴드**
체내 자율운동 촉진, 두한족열 실현
- 03 구들장돌뜸**
단전과 복부를 강건하게
- 04 어깨춤**
굳어진 목 · 어깨 근육을 구들장열로 이완



YOGO YOGO



요고요고 기본형/플러스형



발엔뜸 / 집중밴드



구들장돌뜸 (썸/골드/스톤)



어깨춤

(주)생명사랑

서울시 서초구 양재천로19길 19 1층 / 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88길 30-6(본사/공장)
상담/문의 02-574-7660 www.dolddm.com www.smsr.co.kr

골관절염으로 인한
만성통증엔 심발타! ¹

만성통증! 중추신경계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1,5,6}



- 심발타[®]는 골관절염 통증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1,2}
- 심발타[®]는 중추신경계의 Pain Modulation System에 작용해서 통증 감소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⁴
- NSAID 치료에도 통증 개선효과가 불충분한 환자에게 심발타[®]를 추가한 경우 NSAID 단독 사용군에 비해 1주째부터 유의한 통증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³

Cymbalta[®]
duloxetine HCl

Reference 1. Chappell AS et al. Pain Pract 2011;11(1):33-41. 2. Chappell AS et al. Pain 2009;146(3):253-60. 3. Frakes EP et al. Curr Med Res Opin 2011;27(12):2361-72. 4. Bymaster FP, et al. Curr Pharm Des. 2005;11(12):1475-1493. 5. Woolf CJ. Pain. 2011 Mar;152(3 Suppl):S2-15. 6. Baron R. Nat Clin Pract Neurol. 2006 Feb;2(2):95-106.

심발타[®](주성분: 돌록세틴) 심발타[®] 30mg 중 주성분 돌록세틴 30mg, 심발타[®] 60mg 중 주성분 돌록세틴 60mg | 효능·효과 | 주요 우울장애의 치료, 범불안장애의 치료,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 섬유근육통의 치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에 반응이 적절하지 않은 골관절염 통증의 치료 | 용법·용량 | 이 약은 식사와 관계없이 투여할 수 있다. 1) 주요 우울장애: 1일 1회 60mg, 최대 1일 60mg 2) 범불안장애: 1일 1회 120mg 1)-2)에서 일부 환자에는 약물에 적응할 수 있도록 1주일 동안 1일 1회 30mg으로 투여를 시작하여 1일 1회 60mg으로 증량할 수 있다. 3)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1일 1회 60mg, 최대 1일 120mg 3)에서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증중 신경에 환자의 경우에는 저용량으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증량할 것을 고려한다. 4) 섬유근육통: 1일 1회 60mg, 최대 1일 60mg 5)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에 반응이 적절하지 않은 골관절염통증: 1일 1회 60mg 4)-5)에서 환자가 약물에 적응할 수 있도록 1주일 동안 1일 1회 30mg으로 투여를 시작하여 1일 1회 60mg으로 증량한다. 60mg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에게 1일 60mg 초과용량 투여는 추가적인 유익성이 없으며, 더 높은 이상 반응 발현율과 연관된다. |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경고 | 1) 자살 생각 및 우울증 치료제: 주요 우울장애나 다른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소아, 청소년 및 젊은 성인(18-24세)에 대한 단기간의 연구에서 우울증 치료제가 위약에 비해 자살 충동과 행동(자살 성향)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2) 세로토닌 증후군 |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금기 | 1) 이 약의 주성분 또는 첨가제에 대해 과민증을 나타낼 경우 2) MAO 억제제와 병용하여 할 경우 3) 간질환 환자 4) 투석이 필요한 말기 신질환 환자 또는 중증의 신장에 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 < 30 ml/min) 5) 조절되지 않는 혈우각 녹내장 환자 6)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 7) 과당 불내성(fructose intolerance), 포도당-갈락토스(glucose-galactose) 흡수장애, 또는 수크로스 이소말타아제 결핍증 등의 유전적인 질환을 가진 환자 | 제조회사 | 계약 제조원: Eli Lilly Netherlands BV Grootslag 1-5, NL-3991 RAHouten 수탁제조원: Eli Lilly and Company, Lilly Technology Center Indianapolis, Indiana, 46221 수입원: 한국윌리(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98 STX남산타워 4층) Tel (02-3459-2676) 공동판매원: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330 CJ제일제당센터 11, 12층 CJ헬스케어 ※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품 설명서 원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illy | 한국윌리 유한회사 |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98 STX남산타워 4층 우)100-958
대표전화번호 : 02-3459-2676 http://www.lilly.co.kr

CJ 헬스케어 | CJ 헬스케어 |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330 CJ제일제당센터 11, 12층 CJ헬스케어
대표전화번호 : 02-6740-2119 http://www.cjp.co.kr



以人爲鑑

(이인위감, 남을 거울로 삼다. 남의 잘 잘못을 보고 거울로 삼아 경계함.)

唐太宗 李世民 (당태종 이세민, 600~649년)은 고구려를 침범하였다가 안시성 싸움에서 패배를 하고 도망친 황제라고 다들 알고 있고 중국 역사를 좀 더 안다면 친형과 동생을 죽인 후 아버지를 겁박해 황제가 된 마치 조선의 태종 이방원과 흡사한 인물로 매우 부정적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긴 중국 역사의 수많은 황제 중 가장 훌륭한 황제를 꼽으라면 주저 없이 당태종을 선택할 것이다. 당태종과 신하들이 나눈 말들을 잘 정리한 책 貞觀政要(정관정요)의 忠義篇(충의편)을 보면 당태종은 안시성 싸움에서 고구려군에게 패배를 한 후 허둥지둥 도망치는 와중에서도 적장인 안시성 성주가 잘 싸워 고구려 신하로서 절의를 지켰다고 칭찬을 하며 비단 3백필을 보내는 범상치 않은 황제임을 알 수 있다.

당태종 이세민 하면 반드시 같이 언급 되는 인물이 신하 魏徵(위징, 580~643년)이다. 위징은 원래 당태종의 친형인 태자 이견성의 핵심 참모였다. 위징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야심 있는 이세민을 죽여야 한다고 계속 이견성에게 충언을 했지만 주저하며 받아 들어지지 않았다. 그 후 이세민은 계략을 써서 현무문으로 형 이견성과 동생 이원길을 유인하여 죽인 후(玄武門之變, 현무문의 변고) 아버지인 고조(高祖) 이연(李淵)을 겁박하여 太上皇(태상황)으로 물러나게 하고 스스로 황제에 오른다. 심지어는 죽인 동생 이원길의 처를 후궁으로 들이는 패륜을 저지른다. 이세민은 정변에 성공을 한 후 친히 위징을 심문한다. “네놈은 왜 태자에게 나를 죽이라고 했으며 형제 사이를 이간질 했느냐?”라고 묻자 위징은 “아, 태자가 내 말을 들었더라면 오늘 같은 화는 없었을 것인데, 아쉽다.”라고 당당하게 답한다. 이에 당태종 이세민은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당당함에 감복해 위징을 풀어주고 앞으로 자신의 행동을 감시하고 추후도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면 무슨 말이던 솔직히 충고하라며 諫議大夫(간의대부)에 임명한다. 그 후 어떤 자가 위징이 모반을 획책하고 있다고 고해 왔지만 태종은 “위징은 나와 원수 사이였지만 그는 그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에 충성을 다하는 자다.”하고는 추후도 위징을 의심하지 않고 그 고해온 자를 참수 해 버릴 정도로 위징을 신임했다. (貞觀政要 杜讒邪篇)

위징은 당태종을 위해 17년간을 일했는데 貞觀政要를 비롯한 사료에 남아있는 간언만 200여를 넘는다. 위징은 죽을 때까지 태종의 과오를 주저 없이 비판했고 태종은 자신의 약점을 사정 없이 말하며 逆鱗(역린, 용의 목 밑에 거꾸로 난 비늘로 이를 건드리면 반드시 죽임을 당함. 임금의 약점을 거드리면 죽임을 당한다는 뜻, 韓非子)을 건드리는 그러한 비판을 용인했던 것이다. “폐하께서 제가 간하도록 이끌어 감히 직언을 할 수 있습니다.

폐하께서 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찌 감히 역린을 범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위징의 말처럼, 태종은 자신의 귀에 거슬리는 충언을 기꺼이 듣고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러나 태종도 사람인지라 자신의 약점을 쏘셔대는 위징에 대해 한번은 내전에서 화를 폭발하며 궁궐의 집기들을 던져 깨면서 이 놈의 늙은이를 언젠가는 죽여 버리겠다고 씩씩거리자 장손황후가 이 말을 듣고 슬며시 자리를 떠 내실로 들어가 정식 예복을 입고 나와 태종에게 정중히 무릎을 꿇고 “폐하, 축하드립니다. 위징을 죽인 다음에는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어 앞 왕조인 수양제(隋煬帝) 처럼 사치와 쾌락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축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태종은 자기를 사치와 쾌락을 즐기다가 나라를 망친 수양제에 비유하여 풍자한 것으로 알고, 즉시 “위징을 죽이지 않을 거다.”라며 황후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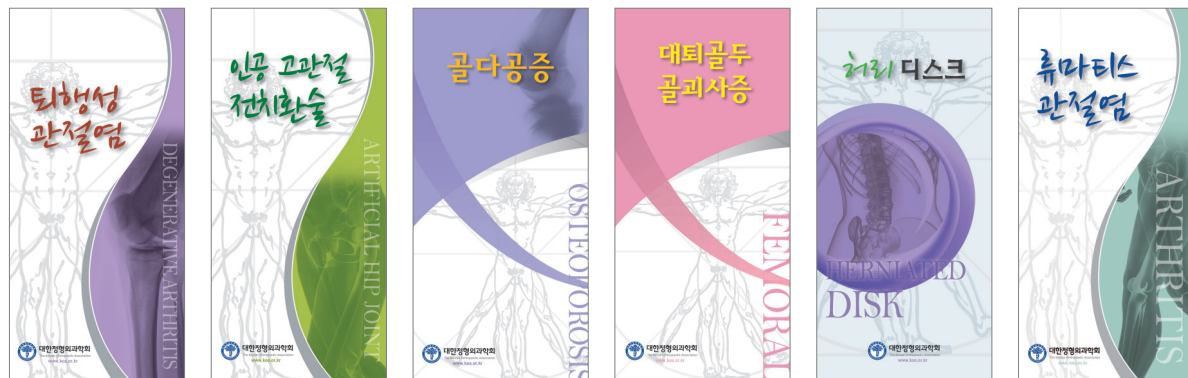
위징의 죽음이 임박하자 태종은 친히 위징을 찾아가 병문안을 하고 죽은 후에는 5일간이나 조회를 열지 않고 슬퍼했으며 친히 비문을 쓴 비석을 세우게 했다. 태종은 “구리 거울로는 의관의 흐트러짐을 바르게 할 수 있고,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앞으로 나라의 흥망성쇠를 알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자신의 잘못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위징이 세상을 떠났으니 나는 거울 하나를 잃었구나”하고 애통해 했다. (以銅爲鑑, 可正衣冠, 以古爲鑑, 可知興替, **以人爲鑑, 可明得失**)

그 후 어느 날 태종은 갑자기 위징이 자신의 역린을 건드린 생각에 화가 나서 자신이 비문을 직접 쓴 위징의 묘비를 깨트려 버린다. 그러다 고구려를 정벌하다가 크게 실패한 후 “아, 위징이 있었다라면 내가 이런 꼴을 당하지 않게 고구려 원정을 말렸을 것인데” 하고 탄식을 하며 위징의 묘비를 다시 세우게 했다.

태종은 황제에 오른 뒤 연호를 정관(貞觀)이라 하였고 중국 역사에서는 그를 가장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황제로 평가하고 있다. 태종이 당나라를 다스린 23년간(626~649년)은 중국 역사에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선정(善政)과 태평성대를 누렸던 시대였기 때문이다. 그의 치세 기간에 국력이 강성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여 이를 貞觀之治(정관시대의 통치)라고 하며 중국인들이 잊지 못하는 가장 위대한 시대이며 현재 시진핑 국가 주석이 말하는 中國夢(중국의 꿈)의 모델이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도 당태종 같이 비록 자기를 죽이려 한 원수일지라도 능력만 있으면 자신의 최측근 참모로 부리는 점을 본받아 인사의 폭을 확 넓히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고소영 내각과 수첩 인사등과 전라도, 경상도를 따지는 속 좁은 인재 등용을 보면.....

貞觀政要(정관정요)는 당태종이 신하들과 나눈 이야기를 역사가인 오공(吳兢)이 편찬한 10권 40편의 책으로 옛부터 제왕학의 으뜸가는 책으로 일컬어지며 이 책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을 비우고 남의 충고를 받아드리는(虛己納諫) 당태종의 위대한 점을 잘 알 수 있다. 비교적 읽기 쉬우며 지금도 어느 분야에서든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꼭 읽기를 추천한다.

정형외과 질환별 팜플릿 발간



- 질환별 팜플렛 7종을 추가 제작(통풍, 발목염좌, 테니스엘보, 반월상 연골판 손상, 근골격계 초음파, 십자인대 파열, 어깨 인공관절수술)하였습니다.
- 질환별 팜플렛 신청을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아래 양식에 의거하여 학회 팩스(02-780-2767) 또는 이메일(ortho@koa.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은 질환별 100부당 15,000원입니다
- 송금계좌 : 국민은행 269101-04-008077 예금주 : 대한정형외과학회

팜플릿 신청

○ 신청자 성명 : _____ ○ 병원명 : _____
 ○ 전화번호(핸드폰번호) : _____ ○ 이메일 : _____
 ○ 주소 : _____

질환명	신청 수	질환명	신청 수

위와 같이 신청함.

1. 학회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 안내

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제59대 집행부에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학회의 투명한 운영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자 정회원을 대상으로 각종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 메뉴 회원공간을 클릭하시고 회의록 메뉴에 들어가시면 열람 가능합니다.

회의록 관련하여 문의 사항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회 운영과 발전에 대하여 전반적인 의견이 있으신 회원들은 회원게시판 및 신문고 공간을 통해서 학회 활동에 참여가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는 학회 발전의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 대한정형외과 국·영문 학회지 유료화 안내

다름 아니오라 국·영문학회지 및 학회소식지 제작과 우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회원 수의 증가에 따라 매년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과거 대량 우편발송에 대한 할인혜택 제도가 소멸하여 우송비용이 연간 1억원을 초과할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8월 20일 개최된 제5차 이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1. 국·영문학회지 및 학회소식지를 PDF 파일로 회원님들께 전달하며, 이에 따라 기존대로 서간을 수령하고자 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구독료를 납부(년 8만원)하셔야 합니다.
2. 65세 이상의 회원님들과 각 정형외과 의국은 기존대로 서간(1부)과 학회소식지를 수령하십니다.
3. 국·영문학회지의 PDF 파일 배포는 금년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학회 소식지는 11월부터 PDF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국·영문학회지를 구독하고자 하시는 회원께서는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되어있는 구독신청서와 구독료를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국·영문학회지 유료화와 학회소식지의 PDF 파일 전송으로 절감되는 비용은 국·영문학회지의 질적 향상과 학회원님들의 권익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사항에 대해 회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3. 필수정형외과학 개정판(제2판) 출간

필수정형외과학의 새로운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개정판에서는 2007년 제1판 출간 이후 빠르게 발전하는 정형외과학의 최신지견과 치료방법들을 전국 의과대학의 분야 별 정형외과 교수들이 정리하여 수록 하였습니다. 이 책은 정형외과에서 반드시 습득해야 할 의학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여 특히 의과대학 학생, 일반의사, 기타 의료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새로 출간된 필수정형외과학은 정형외과를 널리 소개하고 기본적인 정형외과학의 지식을 전달하는데 충분한 교과서라 사료되며 이에 대한 정형외과학회를 대표하여 편집위원장인신 석세일 교수님을 비롯한 집필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정판에 대한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회 장 김 성 재

이사장 김 기 택



전문의 시험 논문점수 규정안내

	이전 규정(현행)	개정된 규정
논 문 제 출	1. 전문의 시험에 필요한 논문 점수(전문의 시험응시 직전까지임)는 최소 3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해당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응시자가 속한 병원에서 만들어진 논문이어야 한다. 여러 병원 공동 연구인 경우에는 적절한 심사를 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 해당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응시자가 속한 병원에서 만들어진 논문이어야 한다.(의료원 산하병원 전공의들은 제외)	1. 전문의 시험에 필요한 논문 점수(전문의 시험응시 직전까지임)는 최소 3점 이상이 되어야 하며, 1편 이상은 대한정형외과학회지나 대한정형외과 영문학회지(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또는 SCI(E) 잡지에 원저로 출간 또는 채택(accepted) 되어야 한다. 단, 해당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응시자가 속한 병원에서 만들어진 논문이어야 한다. 여러 병원 공동 연구인 경우에는 적절한 심사를 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 해당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응시자가 속한 병원에서 만들어진 논문이어야 한다. (의료원 산하병원 전공의들은 제외)
	① 대한정형외과학회지와 대한정형외과 영문학회지(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Asian Spine Journal 그리고 SCI(E)에 등재된 정형외과 관련 학술지는 3점 ※ 정형외과 관련 학술지가 아닌 SCI(E) 등재 학술지일 경우 제1저자 또는 통신저자가 정형외과의사이고, 정형외과 관련 주제를 다룬 논문은 3점 인정, 그 외 논문은 사안에 따라 심의함.	1) 대한정형외과학회지와 대한정형외과 영문학회지(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그리고 SCI(E)에 등재된 정형외과 관련 학술지는 3점이며 출간되거나 채택되면(accepted) 인정한다. ※ 정형외과 관련 학술지가 아닌 SCI(E) 등재 학술지일 경우 제1저자 또는 통신저자가 정형외과의사이고, 정형외과 관련 주제를 다룬 논문은 3점 인정, 그 외 논문은 사안에 따라 심의함.
	② 분과학회지는 2점 : 고관절, 슬관절, 골절, 스포츠의학, 척추, 골관절 종양, 족부족관절, 수부, 견주관절, 미세수술, 관절경, 정형외과연구, 정형외과스포츠의학, 골연부조직이식, JBM(구, 골대사학회지), 류마티스, 정형외과초음파, 정형외과통증의학회, 척추신기술학회, AOSM(대한관절경-대정스포츠의학회 통합영문학회지), Hand Surgery(Asian-Pacific Federation of Societies for Surgery of the Hand 공식잡지) 학회지이다.	2) 분과학회지 및 관련학회지는 학술지의 질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점수 인정한다. ① 현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는 2점: Hip and pelvis(구, 고관절 학회지), 골절, 스포츠의학, 척추, 골관절 종양, 족부족관절, 수부, 견주관절, 류마티스, JBM(구, 골대사학회지), 골다공증, Asian spine journal, Knee surgery and related research(구, 슬관절학회지) ② 기타 관련 및 분과 학회지는 1점: 미세수술, 관절경, 정형외과연구, 정형외과스포츠의학, 골연부조직이식, 정형외과초음파, 정형외과통증의학회, 척추신기술학회, AOSM(대한관절경-대정스포츠의학회 통합영문학회지), Hand Surgery(Asian-Pacific Federation of Societies for Surgery of the Hand 공식잡지) 학회지이다. (기타 관련 및 분과 학회지가 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가 될 경우 2점 인정) 3) 증례보고(case report)는 대한정형외과학회지와 대한정형외과 영문학회지(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그리고 SCI(E)에 발표된 경우는 1점을 인정하고,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 후보지는 0.5점을 인정. 그 외의 분과 및 관련학회지는 인정하지 않음. 증례보고는 "1편 이상은 대한정형외과학회지나 대한정형외과 영문학회지(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또는 SCI(E) 잡지에 원저로 출간 또는 채택(accepted) 되어야 하는 규정"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4) 상기 점수는 필요에 따라서 대한정형외과 이사회에서 분과 및 관련학회지의 질을 재평가 하여 조정한다.
비고	2. 대한정형외과학회 또는 관련학회에서 구연 또는 포스터 1편 이상을 발표하여야 한다. 3.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항과 2)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4. 모든 논문에서 전공의가 1인이면 배정된 점수를 인정하고, 전공의 2인 이상일 경우 3인까지만 배정된 점수에서 1/2점만 인정	2. 대한정형외과학회 또는 관련학회에서 구연 또는 포스터 1편 이상을 발표하여야 한다. 3.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항과 2)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4. 모든 논문에서 전공의 3인까지만 인정하고 배정된 점수를 전공의 수로 나눈 점수를 인정한다.
	※ 전문의 시험 논문 자격 중 대한정형외과학회지, CIOS, SCI(E) 학술지는 채택(accepted) 되거나 E-pub된 경우는 발간(Printed publication)되지 않더라도 논문으로 인정하고, 그 이외의 학술지는 발간된 경우만 인정한다. (주 저자가 정형외과 의사이고 정형외과 관련 학회지이어야 한다) ※ 대한정형외과학회지(JKOA)와 통합된 골관절종양, 골연부조직이식, 정형외과초음파, 정형외과컴퓨터수술학회지는 대한정형외과학회지와 동일한 논문 점수로 인정한다.	상기의 개정된 전문의 시험 논문점수는 2017년 1월 시행되는 전문의 시험부터 적용한다.

CiOS 공지사항

1. CiOS는 2017년 상반기에 SCI(E) 3차 등재 신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학술진흥재단, SCOPUS, Medline Index 잡지입니다.
2. CiOS는 그 동안 문제가 된 심사진행을 빨리해서 6주~8주내에 심사, 게재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3. 현재(2016년 기준) 전공의 3년차부터는 전문의 시험자격 부여시 CiOS나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 반드시 논문 한편 게재가 필수요건입니다.
4. CiOS 편집위원들께서는 종설, 원문, technical note 등 형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1년에 한편씩 원고 부탁드립니다.
5. CiOS는 국외 Editorial Board Member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께서 업적이 훌륭한 분들을 분야별로 (미국과 일본이외의), CV와 함께 추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 CiOS는 심사의 전문성, 지속성, 신속성, 공정성을 위해 국내 Editorial Board Member 와 심사위원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편집에 관심있는 회원들은 CV와 함께 수시로 편집장 김신윤(syukim@knu.ac.kr)에게 지원서를 보내주 시면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편집위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참고로 CiOS 편집위원의 임기는 없으며 수시 교체 가능 합니다. 심사위원으로 일정기간 봉사/ 평가 → 편집위원으로 일정기간 봉사/ 평가 → 분과책임 편집위원으로 일정기간 봉사/ 평가 → 부편집장으로 일정기간 봉사/ 평가 → 행정능력 등 종합평가 후 편집장 시스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7. 국내외 저명학자들의 review article이나 학회의 진료 및 치료 guideline 등의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 지원도 가능합니다.
8. 현재 우리나라 정형외과 학회회원들의 SCI(E) 등재 논문수는 약 700~750편 전후로 세계 4~5위에 해당합니다. 그간 CiOS에도 6년의 Archives가 언제든지 온라인상에서 가능합니다. SCI(E) 논문게재시 CiOS 논문 1편만 인용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9. 원고투여시 연구비 지원(병원, 의료 및 제약회사, 지자체, 정부, 법인)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원고투여시 개인 고유번호 등록인증제인 저자고유식별번호(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 ORCID) 시스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ORCID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연구자들의 고유 식별번호로 동명이인, 영문이름 표기의 다양화에 따른 저자 확인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시스템입니다.

CiOS에 투고를 원하시는 회원들께서는 <http://orcid.org/>에 접속하셔서(Register now를 클릭) ORCID 번호를 만드시 기 바랍니다. ORCID는 CiOS 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학술지에서 도입하고 있으니 CiOS 투고와 상관없이 만들어 놓으 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CiOS 인용상

CiOS 인용상은 전년도 8월부터 해당년도 7월까지 CiOS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SCI(E) 잡지에 가장 많이 인용한 회원에게 수상 합니다. 김신윤(CiOS 편집위원장)

국문학회지편집위원회 공지

1. 본 학회 국문학회지인 대한정형외과학회지가 한국연구재단(학진) 2013년도 학술지평가 계속평가 결과 등재지 유지로 평가 받았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국문학회지편집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심사받는 논문에 대해서 게재확정이후 저자변경은 불가함을 공지합니다.
3. 국문학회지편집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영문으로 작성 된 논문은 투고를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영문은 가급적 CiOS에 투고 부탁드립니다.

관련학회 및 국내학술회 소식

1.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척추외과학회 연수강좌

- 일 시 : 2016년 1월 24일(일) 08:30~16:30
- 장 소 :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
- 주 최 : 대한정형외과의사회 / 대한척추외과학회
- 사전등록 기간 : 2016년 1월 4일(월)~2016년 1월 21일(목)
- 등록비 : 전문의(사전등록 6만원, 현장등록 7만원), 전공의(사전등록 3만원, 현장등록 4만원)
- 문의처 : Tel : 02-2019-3413, Fax : 02-573-5393, E-mail : korspine@naver.com

2. 2016년 부산경남 척추 초음파 중재술 워크샵-대한척추외과학회 척추통증연구회

- 일 시 : 2016년 1월 31일(일) 09:00~17:00
- 장 소 : 해운대백병원 세미나실(5층)
- 인 원 : 30명(3인 1조, 초음파 10대)
- 등록비 : 30만원
- 문의처 :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정형외과 의국 Tel : 051-990-6467, Fax : 051-243-0181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정형외과 교수 김창수 H·P : 010-8519-2118, E-mail : gospel6467@gmail.com

3. 제3회 전방십자인대 심포지엄

- 일 시 : 2016년 2월 14일(일) 08:00~18:00
- 장 소 : 대전 을지대학병원 3층 대강당(범석홀)
- 평 점 : 대한의사협회 6점, 스포츠의학분과 세부전문의 30점
- 문 의 : 대전충청술관절지회 사무국 비서 이승주 Tel : 042-338-2480, E-mail : iris5758@naver.com

4. 2016년 골반골 연구회 모임

- 일 시 : 2016년 2월 19일(금)~20일(토)
- 장 소 :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서울역 근처 호텔)
- 등록비 : 5만원
- 등록 문의 : Tel : 02-3010-3530/3536, Fax : 02-488-7877, E-mail : hjalee@amc.seoul.kr
담당자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이항자

5. 대한골절학회 제42차 학술대회

- 일 시 : 2016년 4월 29일(금)~30일(토)
- 장 소 : 롯데 부여리조트
- 초록 접수 : 2015년 12월 1일(화) ~ 2016년 1월 31일(일) 24:00까지
- 심사결과 공고 : 채택 여부는 Email로 발송 예정
- 문의처 : 대한골절학회 사무국 정유진
Tel : 031-551-1810, Fax : 031-551-1820, E-mail : fxsociety@kofs.or.kr

교실 소식

1. 2016 23rd Severance Arthroscopy Symposium : Knee & Ankle (ISAKOS & AAC Approved Course)

- 일 시 : 2016년 1월 24일(일)
- 장 소 :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본관 6층 은명대강당
- 평 점 : 의협평점 6점, 대한스포츠의학회 분과전문의 연수평점 30점
- 주 최 : 세브란스 관절경 연구회, 연세의대 관절경·관절연구소, 연세대학교 정형외과학교실
- 문 의 : 연세의대 관절경·관절연구소-남선정
- 연락처 : E-mail : sas1992@hanmail.net
- 사전등록 마감일 : 2016년 1월 20일(수)

2. The 4th SNUBH Knee Symposium & Live Surgery

- 일 시 : 2016년 1월 29(금)~30일(토)
- 장 소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지하 1층 대강당
- 평 점 : 대한의사협회 5점
- 담당자 : 성정성
- H · P : 010-8993-8508, Fax : 031-787-4056, E-mail : 2016snubhknee@naver.com

3. 제2회 근골격계연구회 심포지엄 및 초음파 워크샵

- 일 시 : 2015년 1월 30일(토) 09:00~18:00
- 장 소 : 경북대학교병원 응급병동 10층 대강당
- 평 점 : 6점
- 등록비 : 사전등록 5만원, 현장등록 6만원 국민은행 615801-04-193251 (예금주: 근골격계연구회)
- 문 의 : 경북대학교병원 정형외과
- Tel : 053-200-5628, Fax : 053-422-6605, E-mail : medos@knu.ac.kr
- * Musculoskeletal Sonography Workshop 실습은 반드시 사전등록을 하셔야 하며, 당일 현장등록은 받지 않습니다. 선착순으로 조기에 마감되오니, 미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심포지엄 등록비 포함 10만원)

4. 제4회 고려대학교 슬관절연구회 절골술 Cadaver Workshop

- 일 시 : 2016년 2월 13일(토)
- 장 소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신의학과 5층 실용해부실습실
- 모집 인원 : 20명(4인 1조)
- 수강료 : 120만원 (2주 전 까지 등록을 취소할 경우 : 100% 등록비 환불, 1주 전 까지 등록을 취소할 경우 : 50% 등록비 환불, 그 이후는 환불이 불가)
- 문의처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형외과
- Tel : 02-920-5924, E-mail : ky10326@naver.com

5. 2016 SNU Orthopedic Update(I): Musculoskeletal Tumor 연수강좌

- 일 시 : 2016년 2월 14일(일) 09:00~16:05
- 장 소 :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강당
- 평 점 : 5평점
- 문 의 : 장은정 Tel : 02-2072-2360, E-mail : os2360@naver.com

회원 동정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1. 이봉진 회원 강릉동인병원 병원장 취임
2. 김기택 회원 강동경희대병원 병원장 취임
3. 이상홍 회원 조선대학교병원 병원장 취임

참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정성택(전남의대) 회원 모친상

모집 공고

1. 2016년도 인제대 일산백병원 슬관절 임상강사(Fellow) 모집 공고

- 모집부분 : 슬관절 0명 (지도교수 : 나경욱)
- 자 격 : 정형외과 전문의 취득자. 이력서 제출
- 근무기간 : 2016년 3월 1일~2017년 2월 28일 (군전역 예정자는 2016년 5월 1일~2017년 2월 28일)
- 문의처 : 장용석 임상강사 H · P : 010-8921-5542, E-mail : mikeyschang@hanmail.net

2. 강남연세사랑병원 김성재 명예 교수님 연수생 모집공고

- 모집 분야 및 인원 : 슬관절 및 견관절(0명)
- 자 격 : 정형외과 전문의
- 담당교수 : 김성재 명예 교수님
- 수술일시 : 매주 화, 목
- 문의 및 연락처 : 탁대현 (정형외과 과장) H · P : 010-2593-8929, E-mail : taktakta@hanmail.net



1. Intercollegiate X-ray Conference 일정

년 도	개최월일	병 원 명	개최월일	병 원 명
2016	2월 11일	서울성모병원	3월 10일	중앙대(흑석동)병원

(매월 둘째 목요일 저녁 6:00) (1, 4, 8, 10월 없음)

• 연락처 : Tel : 02-2072-2367~2368, E-mail : yooj@snu.ac.kr

2. Interhospital Orthopaedic Conference (매월 첫째 수요일 18:30) (3, 5, 7, 9, 11월 매년 5회 개최)

년 도	날 짜	횟 수	병 원 명
2016	3월 2일	제 117차	세란병원
	5월 4일	제 118차	아주대학교병원
	7월 6일	제 119차	차의과대학 분당차병원
	9월 7일	제 120차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
	11월 2일	제 121차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2017	3월 8일	제 122차	광명성애병원
	5월 10일	제 123차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7월 5일	제 124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9월 6일	제 125차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11월 1일	제 126차	연세사랑병원
2018	3월 7일	제 127차	세란병원
	5월 2일	제 128차	아주대학교병원
	7월 4일	제 129차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9월 5일	제 130차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
	11월 7일	제 131차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 사정상 변경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Tel : 02-2228-2180~2181, E-mail : os@yuhs.ac, 담 당 : 송미현

고문변호사 칼럼은 정형외과와 관련한 의료소송 사례들과 의료 법률상식 등을 알기 쉽게 게재하고 있어 회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의료법률에 관한 궁금사항을 남겨주시면 고문변호사의 칼럼을 통해 조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톱니효과와 의사

이정선(법률사무소 건우)

최근 신문, 방송에서 언급되는 의료관련 뉴스를 보면 모두 의료인에게 불리한 내용 뿐이다.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여 수억 원의 금액을 물어주어야 한다. 형사고소 당하여 수사기관에 불려 다닌다. 리베이트 금지로 제약회사 직원들과 밥 한번 먹기도 부담스럽다. 환자와의 합의하에 비급여 약을 투여하였는데, 환자 사망 후 부당한 비용으로 인정되어 환수되었다. 메르스 진료와 치료를 위해 정부 방침에 따랐더니 너무도 많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여 짜증스럽다 등등. 의료인들을 위협(?)하거나 귀찮게 하는 뉴스는 1달에도 여러 건을 접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정말 의사들에게 고통스럽기만 한 나라일까?

의료사고로 민사소송이 제기되거나 형사 고소로 수사를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비단 의사만은 아니다. 일반인도 이런 상황이면 누구나 부담스러워 한다. 그런데 소송이 의사에게 부담스럽기만 한 것일까? 의료소송에서 환자측이 바라는 만큼 승소하는 확률은 높지 않다. 언론지상에 보도되는 사건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청구 금액의 극히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과실조차 인정되지 않는 사건도 많다.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도, 경찰·검찰 수사관 및 검사 대부분이 의료인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고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일반인에 비하여 형이 낮은 경우가 많다. 2014년에 리베이트 금지 조항 위반으로 병원 임직원이 기소된 사건에서, 금품을 수수한 주체가 직원이 아닌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일반인이었어도 무죄가 되었을까? 업무상과실로 처벌되는 경우에도 진료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의료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면허정지처분의 경우, 기간이 길지 않고, 선고유예 등을 통해 감경되는 경우가 많으며,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투거나 효력 발효시점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도 많다. 어디 이뿐이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요즘, 우리 주변에 파산신청을 한 의료인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는 것과 달리, 의료인은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진료를 하는데 법적인 제한이 없다. 이처럼, 의료인은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유·무형의 혜택을 누린다.

경제학에는 톱니효과(ratchet effect)라는 용어가 있다. 한번 올라간 소비 수준이 쉽게 후퇴하지 않는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 보리밥을 먹다가 쌀밥을 먹는 데 익숙해지면 소득이 줄어도 보리밥이 아닌 쌀밥을 먹되 그 양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게 된다는 말이다.¹⁾

의료인들의 생각과 행동도 톱니효과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 과거에는 의사가 되면, 돈도 잘 벌고, 명예도 높았는데, 최근에는 돈도 못 벌고, 명예도 없어 보인다. 선생님 선생님 하던 환자들이 치료에 동반되는 부종이나 통증에도 컴플레인을 하고, 남들만 당하는 줄 알았던 형사고소를 당하기도 한다. 공단과 복지부는 도와주는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수시로 감시의 손길을 뻗인다. 아 피곤하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에게 최고의 의학지식과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한편 과거와 같지는 않지만, 의사에 대한 사회적 우대 또한 지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혜택에 가중치를 두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선생님”으로 대접받을 당시의 기억을 회색시켜 나의 눈높이를 환자나 일반인과 동치한다면, 그리고 의사로서의 진료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리하여 낮은 쪽의 톱니를 조금만 올려준다면, 의사로서의 존경은 여전히 유지되지 않을까? 경우에 따라서는 돈도 따라올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마음은 조금 더 편안해질 것이다. 분명히.

1) 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 2010. 11., 대한민국정부

출간소식

1. 제2판 필수정형외과학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필수정형외과학 개정판(제2판)을 출간하였습니다. 2007년 제1판 출간 이후 빠르게 발전하는 정형외과학의 최신지견과 치료방법들을 수록하여 정형외과에서 반드시 습득해야 할 의학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였습니다. 정형외과를 널리 소개하고 기본적인 정형외과학의 지식을 전달하는데 충분한 교과서로서 의과대학 학생, 일반의사, 기타의료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가 격 : 60,000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03-01-0571-043
- 구입은 최신의학사(Tel : 02-2263-4723)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2. 골다공증 지침서

정형외과 학회에서는 지속사업으로 임상 진료 지침서를 만들고자 하여 일차적으로 골다공증과 골관절염에 대한 진료지침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모든 정형외과 의사뿐만 아니라 일반 의사도 갖추어야 할 골다공증에 대한 이해와 진료지침을 망라한 표준 지침서라 할 수 있습니다. 책을 발간하면서부터 발체.

- 대한정형외과학회/ 신국판(140*200)/ 216p/ ISBN 978-89-92676-28-1
- 가격 : 20,000원
- 구입은 영창출판사(Tel : 02-926-3223, orthobook.com)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3. 정형외과학 7판 발간

- 구 입 : 최신의학사(Tel : 02-2263-4723)
- 가 격 : 300,000원대

※새로 개정된 정형외과학 7판 내용 중 일부 수정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오표를 공지합니다.

신 · 구조문 대비표

Page	구조문	신조문
89	그 외 동종골이식, 골수 이식 및 세포이식 등이 있다.	그 외 자가 골수 이식 및 자가 세포 이식 등이 있다.
89	골원세포	골조상세포
89	골대체물로는 수산화 인회석(hydroxyapatite) 인산칼슘(calcium phosphate), 카본산칼슘(calcium carbonate), 황산칼슘(calcium sulfate) 등이 대표적이다.	골대체물로는 인산칼슘(calcium phosphate), 카본산칼슘(calcium carbonate), 황산칼슘(calcium sulfate) 등이 대표적이다.
90	골 전도능력은 좋으나, 초기의 구조적인 강도를 유지할 수 없고, 골유도 능력이 없으며, 이물반응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골 전도능력은 좋으나, 초기의 구조적인 강도를 유지할 수 없고, 골유도 능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90	제1형 교원질은 골전도가 용이할 수 있는 틀(scaffold)을 제공하여 골형성을 촉진시킨다.	제1형 교원질은 골전도가 용이할 수 있는 틀(scaffold)을 제공하여 골전도에 도움을 준다.
90	bone morphogenic protein	bone morphogenetic protein



4. 골-연부종양 치료지침(Treatment of Bone and Soft Tissue Tumors)

30년간의 골-연부 종양을 치료하면서 겪은 임상 경험과 최신 지견을 바탕으로 '골-연부종양 치료지침'을 집필하였습니다. 이 책은 골-연부종양의 진단부터 치료와 추시과정까지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어 종양을 전공하는 정형외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평소 종양에 관심이 많은 일반 정형외과 의사들도 참고할 수 있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저 자 : 이수용
- 가 격 : 비매품, 무개(발송료 본인 부담)
- 연락처 : 원자력병원 정형외과 의국(Tel : 02-970-2176, chowanda@naver.com)
- 신한은행(110-165-197845 조완형)으로 5천원 입금하시고 메일 주시면 주소지로 배송해 드립니다.



The First in Class

국내 최초 1회 투여
관절강내 주사제 신약
시노비안주



시노비안주 [Synovianinj.]

- + 교차 결합된 고점도 히알루론산 성분으로 Duration 증대 ¹⁾
- + 투여 횟수 감소로 환자 순응도 증대 ²⁾
- + 기존 3회 투여 제형 대비 유사한 임상 효과 확인 ²⁾

Reference 1) Rat Data, Data on file, LGLS R&D Center
2) Data on file, LG-HACL010

- 성분 및 함량 : 1프리필드 시린지(3mL) 중 BDDE가교 히알루론산 나트륨겔 60mg
- 적응증 : 슬관절의 골관절염
- 용법용량 : 성인 1회 3mL(1 프리필드시린지)를 슬관절강 내에 투여한다.
- 사용상의 주의사항
 - 금기 1)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에 대해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 2) 투여 관절강에 감염 또는 심한 염증이 있는 환자
 - 3) 투여부위의 피부에 감염 또는 피부질환이 있는 환자
- 보험코드 : 668902700
- 상세한 제품 정보는 제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전화 080,023,5757 / www.lgls.c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조원 : Z-Medica Corporation. 미국.

THE BLEEDING STOPS HERE

美 FDA, 유럽 CE, 일본 MHLW 인증!

QuikClot 제품군은 미국 FDA, 유럽 CE, 일본 MHLW 인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 받았습니다.

임상논문을 통한 신속한 지혈효과 입증!

지혈작용을 촉진하는 카올린이 출혈을 억제하며, 임상논문으로 심각한 출혈상황에서도 수분내의 지혈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400만개 이상 판매!

QuikClot 제품군은 미국 병원 및 미 육군에서 2008년부터 400만개 이상 판매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입니다.

과민반응 위험성 NO!

카올린이라는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비활성 물질을 주성분으로, 타생물/인체 유해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 과민반응, 교차감염의 위험이 없습니다.

신속하게 편리하게!

별도의 준비과정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한 드레싱 형태의 제품으로 사용이 용이합니다.



QuikClot®

美 FDA, 유럽 CE, 일본 MHLW 인증!

Global · R&D 선도
Hanmi 한미약품

Hanmi 한미메디케어(주)



PELUBI® Tab.
Pelubiprofen 30mg

한국형 소염진통제 펠루비정

한국의료진에 의해서 연구개발된 국내신약
“한국형 골관절염·요통 치료제” 펠루비® 정

*Celecoxib와 Aceclofenac제제와의 국내 다기관 비교 임상 시험을 통해 Pelubiprofen의 우수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었습니다.

*Prodrug 형태로 위장관 부작용이 적은
안전한 NSAID 입니다.

Daewon
Daewon Pharm. Co., Ltd.